

새로운 경험 제공하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롯데백, 'ART SQUARE LOTTE in JEONJU' 지역 예술가 8명 선정 테마별로 작품 전시

'순수함과 선의'라는 테마를 표현한 4대 지역 예술작가 작품중의 하나로, 지역민의 소통을 위해, 전북 유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창의적 영감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문화 공간 프로젝트 통해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예술인을 매칭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와 새로운 활동무대를 경험하는 취지로 6월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연계, 지역 예술가 8명을 선정하여 백화점 유희공간 장소에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테마별로 전시했다.

또한, 순수함과 선의, 일상을 특별한 순간, 자연과 현실세계라는 테마로 8명의 작가가 29개의 작품을 각

층 휴게공간과 엘리베이터 홀에 전시되어 백화점을 방문하는 연인이나 가족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농어민 판로 개척 프로젝트, 이웃을 위한 사룬테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Art Collaboration"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이 활약할 수 기회와 판로확대로 안정적인 성과가 이뤄질지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백화점 조현섭 전주점장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ART Square LOTTE in JEONJU 문화공간 조성 활동은 지역 상생활동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역민과의 문화 감성 소통활동을 통해 고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연계, 지역 예술가 8명을 선정하여 백화점 유희공간 장소에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테마별로 전시했다.

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활동들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도내

활동중인 예술작가의 설 자리를 위해 다년간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전일중 'JB Dream up 금융투어' 큰 호응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올바른 경제 관념 확립을 위해 전주 전일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JB Dream up 금융투어'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JB Dream up 금융투어'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하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경제교실을 통하여 세계화폐, 저축 및 용돈,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전일중학교 1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와 저축'라는 주제로 경제란 무엇인가?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저축과 투자 등 청소년의 눈높이

에 맞춘 실질적인 금융 교육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중요하다"며, "금융교육이 올바른 저축생활, 나아가서 미래의 올바른 경제활동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해주는 '1사1교 금융교육'과 함께 은행에 교육대상을 초청해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JB Dream up 금융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청 방법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상반기 조달사업 9288억원 집행

전북지방조달청(청장 박수천)은 도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9288억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북조달청 연간 조달사업 목표(1조 4338억원)의 64.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년 같은 기간 조기집행 실적(8210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113.1%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지구매 계약은 연간 집행계획 1조838억원의 64.6%(1700억원)을, 시설공사 계약은 연간 집

행계획 3500억원의 65.3%(2286억원)을 집행하여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박수천 청장은 "하반기에도 신속히 계약을 추진하고 정부 중점 과제인 혁신성장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 강화를 통해 도내 경제가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성별영향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중앙부처·전국 지자체 등 305개 기관 대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등 총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양성평등정책 개선, 분석평가 제도화 수준 등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관장과 함께하는 '차세대 여성과

학자 멘토링 지원', '결혼이민 여성(다문화 가정)의 농촌정착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멘토링 추진' 등 기관장의 정책추진 관심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대중문화와 접목한 '영화로 배우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기여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당직

제의기준 강화, 관행적 대가근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를 인정받았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R&D와 기술보급 현장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보편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윤상 기자

신제품 소개부터 전문가 강연까지... 가정간편식 최신 트렌드가 한자리에

aT, HMR 쿠킹&푸드 페어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3~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가정간편식(HMR) 전문 전시회인 제2회 '2019 서울 HMR 쿠킹&푸드 페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모두의 간편식! 주방없는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열리는 전시회는 총 100여개 업체 160부스가 참가하여, 참신한 HMR 신제품부터 최신 가공·포장기술까지 국내 가정간편식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HMR 월드마켓포럼에는 일본의 업계 및 학계 인사와 미국 3대 식품 소매기업인 Supervalu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간편식 산업에 대한 강의 및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주요 발표주제는 ▲아시아 HMR 시장의 주요 트렌드 ▲일본 80조 유통기업 이온리테일 그룹의 HMR 전략 ▲한국 HMR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인가 ▲HMR, 포장기술이 성패를 좌우한다 ▲HMR의 온라인 마케팅과 유통구조 등이다.

특히, 국내 HMR 기업들의 국외 판로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가 새롭게 기획되어 참가기업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베트남내 3위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린(Linh)씨는 "베트남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의 즉석떡볶이 제품이 매우 인기가 좋다"며,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간편식 제품을 이번 페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쿠킹&푸드 페어에서는 1인 가구와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가 많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포

커스를 둔 제품을 최신 HMR 트렌드 상품으로 꼽았으며, 참가사들 또한 관련제품과 최신 개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aT는 국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우수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내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 이병호 사장은 "가정간편식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행사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의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전북 GAP인증 농산물 판매전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전북권 대형유통매장 롯데마트(전주점, 송천점, 군산점, 익산점)와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복숭아, 멜론, 수박, 양파, 오이, 파프리카 등 전북 GAP 농산물 판매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이란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미생물 등 유해물질을 사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농산물 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에서 농산물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GAP인증농가의 판로확대를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 지역농산물 코너에 GAP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를



대비해 지역농산물 코너에 공급하는 농가들에게 GAP인증 농산물 홍보와 함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도내 농가의 GAP인증 농산물 확대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 대상으로 GAP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자격증반)을 진행하고 있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